

경남의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 및 해소방안 탐색

오세희 · 김기민* · 정성수[†]
(인제대학교 · *창원대학교 · [†]인제대학교)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ome Solu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Gap among Academic High Schools in Gyeongsangnam-do

Se-Hee OH · Ki-Min KIM* · Sung-Soo JUNG[†]
(Inje University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cognition and some solu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gap among academic high schools of four equalization cities' persons concerned in Gyeongsangnam-do. The persons concerned are designated to pupils, parents and teachers of secondary schooling.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ere asked: (i) How serious do they recognize academic achievement gap among academic high schools? (ii) What kind of solutions do they prefer in order to reduce or dissolve academic achievement gap among academic high schools?

The surve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92 persons. They consisted of 2,428 pupils, 1,173 parents and 591 teachers of secondary schools.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were made of the details of the above two questions.

Frequencies, percentage, χ^2 and F test were mainly applied to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alf of the subjec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academic achievement gap among academic high schools in general. Parents were higher than teachers and teachers were higher than pupils in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Secondly, they recognized that radical change of current allocation ways, incentives to competent teachers, and financial support, administrative counseling for unpopular high schools etc. were some potent alternatives to this issue.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gap, Equalization, Academic high school, Alloca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콜만보고서(1966)를 시작으로 사회계층간, 지역간, 인종 간, 남녀 간 교육격차 문제는 교육학의

[†] Corresponding author : 055-320-3482, ssjung@inje.ac.kr

* 이 논문은 연구자들이 경남교육청의 의뢰로 수행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중요한 탐구주제가 되어 왔다(박부권, 1989). 특히, 인종 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미국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다면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래 지역 간 교육격차가 교육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성기선, 1999, 2003; 김태종 외, 2004; 강상진 외, 2005; 김기석 외, 2005; 강영혜 외, 2005 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평준화와 교육격차간의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래 약 35년이 지났지만 평준화 관련 논쟁은 여전히 폐지론과 유지·강화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찬반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 어느 교육정책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생명력이 강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교평준화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고교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고교체제 개편” 등의 보완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의 찬성 논리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협동적 교육체제의 구축을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 과열과 외와 재수생 누적과 같은 교육문제의 완화,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측면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황정규, 1975; 김영철, 1995; 신동로·권인탁, 2000). 한편, 고교평준화의 반대 논리는 학생과 학부모인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학습능력의 차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은 수월성 추구 및 교육의 질 제고, 학업집단의 동질성 보

장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제공, 사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교평준화 정책의 반대논리로 제시하고 있다(김운태, 1991; 김영철, 1995; 신동로·권인탁, 2000).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에 뒤따를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문제들로 인해 현재는 평준화제도의 커다란 기본 틀은 유지하되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추첨 제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학교 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교육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크게 입학전형방법 개선 연구(안경식 외, 2007; 김성렬 외, 2008)와 학교배정방법 개선 연구(김성봉·양진건, 2008; 김성열 외, 2008) 등으로 대별된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결국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시행되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라 생겨나는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가며,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들 간 갈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평준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평준화가 오히려 지역 내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며(김미숙, 2006), 이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형방법과 배정방식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입학전형방법이나 학생배정방식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이나 근원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중

심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살펴보고, 평준화지역 고교 간 학력격차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교육구성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둘째, 이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크게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교평준화 및 학력격차와 관련된 문헌들과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는 학력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에서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들의 접근성과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 한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경상남도는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들로 인해 교육구성원들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러 학력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력격차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접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슷한 문제를 가진 타 평준화 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력격차의 개념과 연구동향

격차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http://krdic.naver.com), “서로 떨어진 간격” 혹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교육격차란 “교육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산출의 차이 정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로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보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결핍되어 있고, 기회에서의 균등보다는 결과에서의 균등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교육격차의 개념은 교육기회의 불균등과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도의 불균등을 의미한다(옥장흠, 1995). 이와 같은 교육격차에 대한 국내외의 정의들에 비추어 볼 때,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차이,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영·강태중, 2004; 김재홍, 2006).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력격차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격차라는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황정규, 1975; 이혜영·강태중, 2004; 김경근, 2005; 하봉운, 2005; 임선화·김경희, 2006; 류방란·김성식, 2006). 하지만 교육격차를 다룬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다룬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결과의 차이인 학업성취 격차에 집중(김경근, 2005)하고 있는데, 학업성취의 격차가 곧 학력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격차는 교육격차의 개념 범위에서 살펴본다면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인 학업성취의 격차 즉,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력격차 논의의 역사는 미국의 콜만 보고서를 시작으로 촉발되었으며 주로 사회계층간, 인종간, 지역 간의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계층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oleman, 1966; Jencks et al, 1972; Hauser et al, 1971; Mosteller & Moynihan, 1972, 강희돈, 1988; 김부태, 1995; 김영철, 2003; 김정근, 2005).

이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다루었던 미시적인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다루었던 간에 논의의 초점은 계층이나 지역 간 격차에 맞추어져 사회계층,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부모의 기대나 지원정도, 학생의 계획 등이 교육격차나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학력격차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각 지역의 학력격차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학교 간 학력격차의 현황이나 해결방안을 논의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간 학력격차의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는 정부 차원이나 학자들의 관심 영역일 뿐이다. 지방자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사회나 개별 교육수요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학력격차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학군이나 학교가 학력격차 유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운태, 1991; 김기석 외, 2005)와 상관없이 어느 학군 또는 어느 학교에 배정받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김성열 외, 2008).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원인은 고교평준화 정책과 이로부터 기인한 선지원 후추첨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준화제도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별 입학전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력향상을 소홀하도록 만들었으며,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인해 평준화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육수요자들은 근본적으로 고

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 고교 간 학력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학력격차의 요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력격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력격차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 지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원, 인지적·비인지적 경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있겠지만(류방란·김성식, 2006),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홍, 2006).

가. 학교 내적 요인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학교 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반상진(2005)은 교사, 학생비율, 시설수준, 학교 운영비 등과 같은 학교의 교육조건과 학급편성, 규모요인 등과 같은 학교특성, 교사의 학력수준, 봉급수준, 경력수준 등과 같은 교사요인, 학생 1인당 교육비 등과 같은 학생 요인, 교수방법, 교과 당 수업시간, 수업절차 등과 같은 교수-학습 요인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신일(2003)은 학교의 시설, 교구, 재정, 교사의 수와 교육능력 등을 학업성취 격차를 유발하는 학교 내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병성 외(1981)는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업성취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수는 학습풍토이며, 그 중에서도 교사풍토가 가장 상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학업성취는 교사의 기대 효과 등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Brookover(1978)는 교사의 기대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기대, 교사의 기대 등 학교 구성원의 기대와 상호 인식을 포괄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학교풍토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교풍토는 학생풍토, 교

사풍토, 교장풍토로 이루어지며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력에 영향을 준다(허용희, 2008). 요컨대,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학교 내적요인은 각 학교가 가진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이나 학교의 풍토임을 알 수 있다.

나. 학교 외적 요인

학력격차 및 교육격차는 학교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주로 IQ, 적성, 동기화, 선행학습 경험 등과 같은 학생들의 선천적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 자신감, 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과 같은 후천적 노력과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반상진, 2005). 이와 같은 학교 외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요인은 학생의 지능인데 김경근(2005), 김신일(2003), 김병성(2004) 등에 의하면 지능에 대해서 유전우위론, 환경우위론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능이 높으면 성적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의 지능과 함께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학교 외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요인은 바로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학교교육과 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콜만 보고서(1966)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간 학업성취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학생의 가정 배경이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사의 질 등 학교 변인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콜만 보고서가 가지는 한계가 많이 있으며, 가정 배경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연구(김경근, 2005; 광수란, 2005)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학교 변인보다 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외적 요인으로 학생과 부모의 상호작용, 부모 지원과 보조

정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다. 요컨대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학교 외적요인은 학생의 지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배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3. 학력격차 관련 선행연구의 개관

가. 고교 입학전형 및 배정방법 개선연구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부나 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수준에서 평준화 정책의 성과나 적합도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별로 자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고교 입학전형방법 개선 연구, 고교 배정방법 개선 연구 등(안경식 외, 2005, 2007; 박부권 외, 2007; 김성렬 외, 2008, 김성열 외, 2008, 김성봉 외, 2008; 김기민 외, 2009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학력격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입학전형이나 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고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입학전형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안경식 외(2007)의 연구와 김성렬 외(2008)의 연구에서는 평준화의 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내신제도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학력신장을 촉진시키고 학습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및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방식 등에 관한 경남, 김해, 강원도, 전남 등의 연구에서는 내신성적만을 반영하는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함께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성봉·양진건(2008)의 연구와 김성열 외(2008)의 연구에서도 교육구성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존재함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현저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군 설정 및 지방 학교수의 제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 조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구체적인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다.

나. 학력격차 및 해소방안 연구

학력격차 또는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이나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부권(1989)은 대학진학률을 활용해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간 학력격차를 분석한 논문에서, 학군 간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학군요인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군에 모이는 쏠림현상과 특정 학군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자녀교육으로 인한 차이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군간 학력격차는 학부모 요인과 학생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학군과 학력격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김경근(2005)은 한국교육패널(KEEP)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논문에서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치유하기 어려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봉운(2005)은 서울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 유발요인을 규명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한 연구에서, 서울시에 존재하는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의 경제력,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역 간 교육여건, 교육경비 보조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외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 행정기관간의 협력 방안 마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방안 증진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임선화·김경희(2006)의 대전 동서지역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

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전의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 복지에 대한 인식 및 지원체제 부족,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과 학생 관리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동서지역 간 학교 시설 격차 해소, 형평성 있는 학교의 재배치, 교육부적응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의 상향식 결정과정을 통한 자율과 참여의 확보,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엄연히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력격차의 발생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유하기 힘든 구조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며, 단지 정부나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학력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정도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4.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의 학력격차

2009년 현재 경상남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마산, 창원, 진주, 김해 등 4개 지역이며¹⁾, 지역별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과 고입 선발고사 없이 오직 내신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선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본인의 중학교 내신성적에 터하여 해당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제 1 지망자가 지원학교 정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100% 선발하며, 제 1 지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 2 지망 학교 또는 그 이하의 지망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이다.

1) 평준화 도입시기는 마산 1979년, 창원 1980년, 진주 1981년, 김해 2006년부터임.

이와 같은 현행 배정방식은 중학생들의 과도한 고교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지망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 자신이 지망한 고등학교에 배정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선발방식과 배정방식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열 외, 2008; 김기민 외, 2009).

첫째, 특정 학교(특히 사립학교)로 우수학생 대부분이 제 1 지망하는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집중됨으로써 평준화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교 간 학력격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립고와 사립고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공립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립고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발하고 있다.

둘째, 선호도가 높은 특정 학교에 지망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학생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평준화지역 남녀공학 학교의 학력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단성학교보다 남녀공학 학교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히 남학생을 중심으로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교사들도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중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는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인 A도시의 고등학교들 중에서 상위 10개 학교만 뽑은 것인데, 상위 10개 학교 간에도 학력격차가 약 100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 간 학력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 경남 평준화 지역 고교 간 학력격차 실태(2008년 8월)

(원점수 기준: 평균)

학 생 수	인 수	의 리	도 국	국 적	입 사	한 국	물 리	화 학	생 물	지 리	총 점	순 위	
수	(100)	(100)	(100)	(20)	(30)	(25)	(25)	(25)	(25)	(25)	(500)		
412	77.3	77.8	86.8	24	16.1	22	18.3	20.9	24	17.3	14.1	374.4	1
222	78.6	68.9	87.1	23.3	14.7	21.7	17.7	16	21.9	15.1	14	359.7	2
375	72	66.8	79.8	22.8	14.2	20.1	16.2	17.4	21.4	13.4	13.6	332.1	3
184	69.3	70.3	78.8	21.6	13.2	20.6	17.2	19.2	22	15.3	13.3	331.3	4
435	74.1	63.7	81.2	23.3	13.2	20.2	15.9	15.3	21.2	14.1	12.1	330.6	5
412	68.9	61.8	72.7	23	13.5	20	15.5	15.1	21.1	15.9	12.3	311.2	6
389	68.4	57.1	72.6	23	13.8	19.4	14.7	14.5	19.8	12.5	12	306.5	7
449	69.4	57.4	72.4	21.7	12.6	19.3	15.7	13.3	19.7	13.9	12.1	304.5	8
407	68.2	61.1	66.4	21.7	13.8	20.5	16	16.2	19.9	14.2	12.1	302.1	9
377	65.3	54.6	70.9	21.5	12.6	19.6	15.2	14	18	10.5	11.9	291.2	10

*출처: 김기민 외(2009). p.188에서 재인용.

Ⅲ. 연구 방법

1. 설문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창원, 마산, 진주, 김해)의 교원, 학부모, 중학생(2학년, 3학년) 고등학생(1학년)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중학교의 표집 및 고등학교의 표집을 위해 4개 지역 교육청별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남학교, 여학교, 공학학교를 고려하여 지역별 5개교 표집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0개교, 총 40개교를 설문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표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표집은 설립유형 및 설립형태,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2학년은 학교별 20-30명씩 중학교 3학년 학생은 30-60명씩, 고등학생의 표집은 학교별 30-60명씩 무선표집하였다.

학부모 조사는 중학교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집은 설립유형 및 설립형태를 고

2) 이미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 학부모보다는 자녀의 고교진학을 앞둔 중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려하여 4개 학교를 표집 한 후 학교당 60부씩 배부하였다. 교사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표집하여 각 30부씩 배부하였다. 이상의 표집과정을 거쳐 배부된 설문지는 학생 2,650부, 학부모 1,440부, 교사 720부 총 4,810부이다.

<표 2> 설문대상별 표집 현황

학생(중 2학년)			학생(중 3학년)			학생(고 1학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남 중 30	여 중 30	공 중 30	남 중 20	여 중 20	공 중 20	남 중 60	여 중 60	공 중 40
남 중 30	여 중 30	공 중 30	남 중 40	여 중 30	공 중 40	남 고 60	여 고 60	공 고 40
90부			60부			160부		
합계			670부×4개 지역(창원, 마산, 김해, 진주) = 총 2,650부					

학부모(남중)-공학포함				학부모(여중)-공학포함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반 (60명)	2반 (60명)	1반 (30명)	1반 (30명)	2반 (60명)	2반 (60명)	1반 (30명)	1반 (30명)
360부×4개 지역(창원, 마산, 김해, 진주) = 총 1,440부							

교사(중학교)		교사(고등학교)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
60명	30명	60명	30명
180부×4개 지역(창원, 마산, 김해, 진주) = 총 720부			

2. 설문문항, 회수율 및 분석 방법

설문지 문항은 학교 간 학력격차에 초점을 맞추되 추가적으로 고입배정 방식, 무시험 고입전형 방식 등에 대한 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교사용은 15문항, 학생과 학부모용은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학력격차와 관련된 문항만을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학력격차 관련 문항은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 학교 간 학력격차의 원인, 우수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에 대한 인식, 학력격차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기피학교 문제 해결 방안, 학력격차 해소방안 등 총 6문항이었다.

설문조사는 2008년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87.2%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대상별 회수율 현황은 <표 3>과 같다.

설문 문항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 대상별 설문 회수현황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총계
	2학년	3학년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발 송	590	1,030	1,030	360	360	1,440	4,810
회 수	511	998	919	316	275	1,173	4,192
회수율	86.6%	96.9%	89.2%	87.8%	76.4%	81.5%	87.2%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력격차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간 학력차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X ²
중학 빈도	47	110	619	533	196	1505	
학생 비율	3.1%	7.3%	41.1%	35.4%	13.0%	100.0%	
고등 빈도	49	137	306	276	150	918	
학생 비율	5.3%	14.9%	33.3%	30.1%	16.3%	100.0%	
교사 빈도	11	68	142	283	84	588	167.656***
교사 비율	1.9%	11.6%	24.1%	48.1%	14.3%	100.0%	
학부 빈도	19	126	367	538	117	1167	
모 비율	1.6%	10.8%	31.4%	46.1%	10.0%	100.0%	
전체 빈도	126	441	1434	1630	547	4178	
전체 비율	3.0%	10.6%	34.3%	39.0%	13.1%	100.0%	

***p<.001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교사(62.4%)와 학부모(56.1%)가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생(46.4%)조차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학력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력격차가 심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고등학생(20.2%)을 제외하면 모든 집단별로 약 10%에 불과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중학생(60.3%), 고등학생(70.4%), 교사(54.3%), 학부모(42.9%) 모두 특정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교사의 실력과 열정, 지역의 경제적 여건, 남고/여고/공학 등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학부모의 경우 학력격차의 원인으로 교사의 실력과 열성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36.9%)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5>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발생 이유

구분	빈도	우수 학생출립	학교 유형	교사 실력/열정	지역의 경제적 여건	전체	χ^2
중학생	빈도	460	58	134	111	763	197.446***
	비율	60.3%	7.6%	17.6%	14.5%	100.0%	
고등학생	빈도	317	26	61	46	450	
	비율	70.4%	5.8%	13.6%	10.2%	100.0%	
교사	빈도	210	37	41	99	387	
	비율	54.3%	9.6%	10.6%	25.6%	100.0%	
학부모	빈도	288	34	248	102	672	
	비율	42.9%	5.1%	36.9%	15.2%	100.0%	
전체	빈도	1275	155	484	358	2272	
	비율	56.1%	6.8%	21.3%	15.8%	100.0%	

***p<.001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는 쏠림현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특정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전혀 문제없다	별로 문제없다	보통	상당히 문제	이유심각	전체	χ^2
중학생	빈도	71	221	560	481	171	1504	241.856***
	비율	4.7%	14.7%	37.2%	32.0%	11.4%	100.0%	
고등학생	빈도	62	138	153	367	197	917	
	비율	6.8%	15.0%	16.7%	40.0%	21.5%	100.0%	
교사	빈도	25	141	138	211	75	590	
	비율	4.2%	23.9%	23.4%	35.8%	12.7%	100.0%	
학부모	빈도	58	279	336	410	81	1164	
	비율	5.0%	24.0%	28.9%	35.2%	7.0%	100.0%	
전체	빈도	216	779	1187	1469	524	4175	
	비율	5.2%	18.7%	28.4%	35.2%	12.6%	100.0%	

***p<.001

특정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는 쏠림현상에 대해서 모든 집단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61.5%)과 교사(48.5%) 집단이 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특정학교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성적을 학교별로 상·중·하로 나눈 후, 각 고등학교에 골고루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37.3%)이 반대하는 의견(32.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찬성은 특히 교사집단의 찬성비율(42.1%)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찬성비율(33.7%)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정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려 학력격차를 유발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피학교

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 및 교사들의 자괴감과 허탈감은 그 심각성이 매우 커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구성원들은 기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고 있을까?

<표 7> 쓸림현상 방지를 위해 성적별로 골고루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

구 분	적극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찬성	적극 찬성	전 체	X^2
중학 생	빈도 156 비율 10.4%	306 20.3%	529 35.1%	363 24.1%	152 10.1%	1506 100.0%	85.859***
고등 학생	빈도 116 비율 12.6%	234 25.5%	258 28.1%	198 21.6%	111 12.1%	917 100.0%	
교사	빈도 61 비율 10.4%	157 26.7%	123 20.9%	182 31.0%	65 11.1%	588 100.0%	
학부 모	빈도 86 비율 7.4%	257 22.0%	334 28.6%	366 31.3%	125 10.7%	1168 100.0%	
전체	빈도 419 비율 10.0%	954 22.8%	1244 29.8%	1109 26.5%	453 10.8%	4179 100.0%	

***p<.001

기피학교 문제해결 방안으로 중학생(32.3%), 고등학생(37.5%), 교사(34.1%), 학부모(28.9%) 모두 기피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8> 기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구 분	통학의 편리성 고려	재정 지원	교사 충원	장학금	전 체	X^2
중학 생	빈도 335 비율 22.9%	472 32.3%	325 22.2%	330 22.6%	1462 100.0%	102.177***
고등 학생	빈도 161 비율 18.4%	328 37.5%	186 21.3%	200 22.9%	875 100.0%	
교사	빈도 196 비율 34.1%	196 34.1%	81 14.1%	101 17.6%	574 100.0%	
학부 모	빈도 295 비율 26.2%	325 28.9%	320 28.4%	186 16.5%	1126 100.0%	
전체	빈도 987 비율 24.4%	1321 32.7%	912 22.6%	817 20.2%	4037 100.0%	

***p<.001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통학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들은 장학금과 교사 충원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기피학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사·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와 같은 견해차는 향후 학생 배정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구 분	배정 방법	재정 지원	교사 충원	공학 분리	지필 고사	전 체	X^2
중학 생	빈도 550 비율 37.7%	417 28.6%	334 22.9%	65 4.5%	91 6.2%	1457 100.0%	149.957***
고등 학생	빈도 358 비율 41.2%	207 23.8%	192 22.1%	42 4.8%	70 8.1%	869 100.0%	
교사	빈도 269 비율 47.1%	141 24.7%	52 9.1%	64 11.2%	45 7.9%	571 100.0%	
학부 모	빈도 359 비율 31.6%	301 26.5%	344 30.3%	51 4.5%	80 7.0%	1135 100.0%	
전체	빈도 1536 비율 38.1%	1066 26.4%	922 22.9%	222 5.5%	286 7.1%	4032 100.0%	

***p<.001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배정방법 개선’ 37.7%, ‘재정 지원’ 28.6% 순으로, 고등학생은 ‘배정방법 개선’ 41.2%, ‘재정지원’ 23.8% 순으로, 교사들은 ‘배정방법 개선’ 47.1%, ‘재정지원’ 24.7% 순으로, 학부모들은 ‘배정방법 개선’ 31.6%, ‘교사충원’ 30.3% 순으로 응답을 하여, 모든 집단에서 ‘배정방법 개선’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적절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학력격차 및 해소방안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앞에서 살펴본 교육구성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특

히 어느 집단 간에 인식의 차가 뚜렷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조사 문항들 중에서 평균의 차이검증이 의미를 가지는 문항들에 대해 실시한 F 검증 및 사후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학부모, 학생, 교사 각 집단 간에 모두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수학생이 특정학교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후검증 결과 학부모와 중학생 및 교사집단은 동일집단군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 집단들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가 나타났다.

한편, 우수학생이 특정학교로 쏠리고 결국 이것이 학력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성적(상, 중, 하)에 따라 골고루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표 7>에서도 나타났듯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뚜렷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집단들이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집단 간 인식 차에 대한 F 검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 오차 편차	표준 오차 오류	유의 확률	Scheffe
학력 격차에 대한 인식	중학생	1,505	3.48	.919	.024	
	고등학생	918	3.37	1.086	.036	학부모 < 중
	교사	588	3.61	.932	.038	학생, 고등
	학부모	462	2.22	.868	.040	학생 < 교사
	합계	3,473	3.31	1.054	.018	
우수 학생 쏠림에 대한 인식	중학생	1,504	3.31	1.009	.026	
	고등학생	917	3.54	1.177	.039	학부모, 중
	교사	590	3.29	1.093	.045	.000 학생, 교사
	학부모	1,172	3.28	1.127	.033	<고등학생
	합계	4,183	3.35	1.097	.017	
성적 별로 골고루 배정	중학생	1,506	3.03	1.123	.029	
	고등학생	917	2.95	1.208	.040	
	교사	588	3.06	1.197	.049	.250
	학부모	1,167	2.99	1.163	.034	
	합계	4,178	3.01	1.164	.018	

3.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경남의 평준화 지역인 창원, 마산, 진주, 김해의 중·고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준화 지역 내에서의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격차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평준화 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들 간에 학력차이가 심하다는 우려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조차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음을 주장한 연구들(김영철, 1995; 윤종혁 외, 2004; 김기석 외, 2005)로 인해 고교평준화와 학력을 연관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교육구성원들은 평준화 지역의 학교 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교평준화 정책과 학력은 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한편 학력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선지원 후 추첨의 배정방식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의 경우 쏠림현상과 함께 교사의 실력과 열정도 상당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선행연구들(Brookover, 1978; 김신일, 2003; 반상진, 2005)에서 지적된 학생변인과 교사변인을 학력격차의 원인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력격차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각 고등학교별로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지도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의 쏠림현

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김병성 외 (1981)가 지적한 교사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둘째,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교육구성원들은 평준화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전형방식의 개선(안경식 외, 2007; 김성렬 외, 2008)보다는 오히려 고교배정방법을 개선하거나 배정 희망순위가 낮은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같은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신일, 2003; 반상진, 2005)에서 제시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교육구성원들은 고교배정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하나의 대안으로 학생의 성적을 학교별로 상·중·하로 나눈 후 각 고등학교에 골고루 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서 교육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대안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학교별 배정이 아닌 학군별 배정이나 상위권 학생들을 1지망별로 일정 비율로 배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배정 희망순위가 낮은, 소위 기피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기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통학의 편리성 고려나 우수교사 충원, 장학금 확충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기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통학의 편리성, 우수교사 충원 등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피학교 문제해결을 위해서 통학의 편리성보다는 우수교사 충원과 장학금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통학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충분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기피학교를 없애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사 확보를 위한 보상체제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피학교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교육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학교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즉 내부기제를 통한 학교경쟁력 제고에 대한 문제점 노정시 외부기제를 활용한 학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컨설팅을 통한 학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들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학교컨설팅연구회 홈페이지; 박상완, 2008; 진동섭 외, 2008).

이와 함께 기피 고등학교들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피 고등학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 우수교사 유치, 장학금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김성렬 외, 2008),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와 교육청, 평준화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예산 지원 노력들이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들과 접촉하여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들에게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노력과 과정들은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교육구성원들은 지역 내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아울러 우수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각

종 보상체제를 마련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향후 고교평준화 연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수준의 연구보다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연구 즉, 지역 내 학교간 학력격차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근래 몇 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들 간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과 그 해소방안을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탐색하였는데, 우수한 학생들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평준화 고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배정방법을 개선하거나 배정 희망순위가 낮은 기피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 통학의 편리성을 고려한 배정방식의 변경, 기피학교에 유능한 교사 충원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대폭 확충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교육구성원들 대부분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곧 기피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력격차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와는 무관하게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 내 교육구성원들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들 사이에 학력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집단별로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최근에 수행된 타 시도교육청의 연구결과(임선희·김경희, 2006; 안경식 외, 2007; 김성렬 외, 2008; 김성봉·양진건, 2008)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경상남도 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상당부분 타 시도나 교육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으며,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향후 고교평준화 정책을 검토할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바로 평준화지역 교육구성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들 간 학력격차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학력격차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처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도별로 보다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도별 또는 평준화 지역별 학력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보다 심층적이며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상진 외(2005). 고교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외(2005).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III)-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강희돈(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경화(2007).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계 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2), 1~22.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김기민 외(2009).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간 학력격

- 차 해소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 김기석 외(2005).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2006). 평준화지역 학교들 간에 교육의 질 차이가 있는가?,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1-30.
- 김미숙(2007). 평준화 제도 내에서 수월성 교육은 불가능한가?, 교육정책포럼, 통권158, 4~8
- 김부태(1995).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삼곤·박종운·이상철(2002). 경북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산업 의식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1~26.
- 김성렬 외(2008). 충청북도 일반계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충북고입전형개선연구팀.
- 김성봉·양진건(2008). 제주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김성열 외(2008). 평준화지역 학교 배정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 김성열·김기민·오세희(2009).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간 질적 차이에 대한 분석-경남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81~110.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2003).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일(2004). <보론>고교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의미, 역사비평, 통권 67, 86~101.
- 김윤태(1991). 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반대논리, 교육진흥, 13, 28~39.
- 김재홍(2006). 지역 간·계층 간 교육여건 및 학력격차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래·윤종혁·최준렬(2004). 김해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중 외(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KDI 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이광현·김수영(2007).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 박부권 외(2007).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박부권(1989). 지역 간·학군 간 학력격차의 문제, 교육평가연구, 3(2), 181~196.
- 박상완(2008). 학교건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343~362.
- 박소영·민병철(2008). 참된 교수방법이 영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 35(4), 131~151.
- 박영철 외(2002). 대전광역시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배정 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7). 교육학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성기선(1999).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26(2), 149~168.
- 성기선(200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학력 하향화 쟁점 분석, 교육시민연대 학술대회자료집.
- 성기선(2004). 하향 평준화 논의와 학력, 고교평준화 디스커션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성병창·박소영(2008). 내신 성적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교사와 학생 인식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0(3), 452~461.
- 신동로·권인택(2000).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교육학연구, 38(3), 21~39.
- 안경식 외(2005). 부산광역시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 안경식·주철안·성병창·박소영(2007). 부산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 옥장홍(1995). 도시·농어촌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종혁 외(2004).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강태중(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선희·김경희(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6(3), 185~206.
- 장한기·박종운·이상봉(2006). 컴퓨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수산해양교육연구, 18(2), 183~193.
- 정정길 외(2004).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 정정길 외(2005).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진동섭 외(2008). 학교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S대 중등교육연수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6(2), 229~257.
- 하봉운(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3(3), 167~193.
- 황정규(1975). 교육격차의 현실과 과제: 교육심리·과정측면에서, 교육학연구.
- Coleman, J.(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37~77.
- Hauser, R. M., W. H. Sewell, and D. F. Alwin (1971) High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In Sewell, Hauser, and Fearherman(eds.),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merica society, New York: N.Y. Academy Press.
- Hoy, Wayne K. and Cecil G. Miskel(2008).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Jencks, C.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Lipsky, Michael(1976).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Willis D. Hawley and Michael Lipsky(ed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urban politics. Englewoods Cliffs, N.J.: Prentice-Hall.
- Mosteller, F. and D. P. Moynihan(eds.)(1972).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Vintage Books, Random House.
- 학교컨설팅홈페이지 <http://schoolconsulting.net>.
-
- 논문접수일 : 2010년 01월 07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0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02월 10일